음악으로 그림으로 이웃돕기

법현 스님 '더불어 사는…' 성각 스님 선서화전 등 자비행사 잇달아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또 다시 닥쳐온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대한 불안감은 마음마저 움츠러들게 한다. 하지만 거리엔 벌써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아픔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보살행'임을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돼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불심은, 선율과 화폭에 온정을 담아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녹이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음악만큼 좋은 수단도 드물 것이다. 설명 없이도,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합의 다리를 놓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부암아트홀에서는 법현스님의 '더불어 사는 음악회'가 열린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법현 스님의 음악회는 첼로 독주, 바이올린, 성악, 피아노 삼중주 등 클래식 선율이 주를 이루고 대중적 노래가 곁들여진다. 음악회와 함께 6층 전시실에서는 16일까지 수석 및 서예·그림 전시도 연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이나 교도소, 양로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의료기구나 겨울옷을 전하는 데 쓸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일에는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제2회 부다가야 청년문화예술제가, 11월 30일 대구시민회관에서는 진각종 금강합창단의 '어려운 이웃돕기 자선 음악회'가 있었다. 금강합창단의 자선음악회에는 특히 금강합창단이 3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내 복지재단 정신지체장애인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자선음악회가 열린 시민회관 로비에서는 또 경전심인당의 신교도 차새환 불자가 연꽃사진 전시회를 열어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에 보탰다. 불음합창단도 지난달 24일 연 창립 15주년 기념음악회 수익금 모두를 어려운 이웃돕기에 쓸 계획이다.

자선음악회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소년소녀합창단은 내년 1월 15일 진주 문예회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연다. 《풍경》의 저자 원성 스님과 함께 준비중인 이번 음악회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공연됐던 '그림으로 못다 한 동승의 노래-풍경' 공연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진주시립교향악단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장뿐 아니다. 선서화(禪書畵)로 유명한 성각(경남 남해 망운암 주지) 스님은 울산지역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선서화 특별 초대전을 16일까지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에서 연다. 성각 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서울·부산·경남과 중국 등 국내·외에서 20여 차례 전시회를 열었고,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써왔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 역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울산대학병원 어린이병동에 맡길 생각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달마, 관음도, 산, 늘 좋은 날 등 독특한 화법과 운필의 선서화 50여 점을 내놨다.

출가 전 만화가로 활동한 적이 있는 성각 스님은 "내 그림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중생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nny@buddhapia.com)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음악회가 열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녹이고 있다. 사진은 올해로 4회째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여는 법현 스님.

사이버 문화

설송스님 그림모음

달마도 보며 느끼는 생각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설송 스님의 홈페이지(http://www.seolsong.net)에서는 달마대사의 생애를 표현한 달마도가 네티즌들을 맞이한다.

달마도란 달마의 전기 중에서 특정한 사건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이에 대해 설송 스님은, 달마도에는 달마절노도강도(達磨折蘆渡江圖), 면벽달마도(面壁達磨圖), 반신(半身)의 달마도(達磨圖), 송하달마도(松下達磨圖), 척리달마도(隻履達磨圖)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달마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커다란 눈과 부리부리한 눈빛이다. 그림 상의 이런 표현은 경전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자극하고 환기시키는 수행법의 일종으로 이해되어 왔다. 벽관(壁觀)을 가르친 달마대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또 깨달은 자로서의 달마의 성격과 소림사 무술을 창시했다는 달마대사의 면모를 동시에 표현한 특징적인 도상이기도 하다.

설송 스님은 달마도를 통해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을 본으로 삼는 선(禪)을 해설한다. 스님은 달마도를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초탈한 그 무엇을 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경주 남산 문화재 '도록 정리'

도판편 발간…본문편 곧 나와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됨으로써 인류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 된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알뜰히 추스린 《경주남산》 종합도록이 발간됐다. 도판편과 본문편으로 나올 종합도록 가운데 도판편이 먼저 나왔다. 모두 816장에 달하는 컬러사진과 탁본실측자료를 수록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가 450쪽짜리 특대판으로 펴낸 도록은 연구소 직원들이 2년여 동안 남산을 수백 차례 오르내리면서 유적들을 직접 조사하고 촬영해 펴낸 것이다.

이번 도록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재 외에도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보리사 석불좌상의 비천상과 남산신성비 제10비, 삼릉계곡에서 발견한 석조불상과 석탑부재까지 포함돼 있다. 남산에서 옮겨져 박물관 등에 전시돼 있는 중요 문화재까지 빠짐없이 실었다.

특히 불상의 경우 정면과 측면, 뒷면 등 다양한 세부사진을 넣었고 올해 연구소에서 실시한 7기의 석탑 발굴조사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복원도를 함께 실어 전문가들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발간될 본문편에는 남산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서로 조선총독부가 펴낸 《경주남산의 불적》이 번역돼 실리고 남산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금석문 자료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렌즈에 비친 만다라 세상

영남불교대 사진연구회 '불교 건축과 이미지' 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사찰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주말마다 사찰을 순례하며 그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온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첫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영남불교대학 토비전시실에서 22일까지 열리는 만다라사진연구회(회장 강진석) 창립 전시회 '불교의 건축과 이미지' 전이다.

이번에 내놓은 작품들은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찍은 사진이 아니다. 1년여 동안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저녁노을이 지는 산사의 풍경이나 툇마루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는 스님의 모습 등 사찰에서 느낀 단상을 사진에 담아냈다.

회원 10명이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5점까지 출품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사진작가 임석교(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출강)씨와 주지 우학 스님, 사진작가협회 구본활씨도 작품을 내놓았다.

강진석 회장은 "각자 직장생활에 쫓기면서도 주말이면 전국의 절을 찾아 법회를 보고 기도를 올렸다"며 "비록 기술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은 아니지만, 절을 찾고 조금씩 배워가며 사진 찍는 일 자체가 신행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사진동아리가 아니라 신행단체로 봐 달라는 사진연구회는 올 1월 결성됐다. 개인적 취미나 관심으로 불교대학내 문화센터에서 사진반 강의를 수강한 불자들이 개인차원을 넘어 사진을 통해 봉사활동을 펼치자고 뜻을 모았다.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는다. 불교대학내 각종 행사나 법회시 사진 촬영은 연구회의 몫이다. 지난 9월에는 무의탁노인 100명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기도 했다. (053)474-8228

권형진 기자

◇임석교 作

◇이영희 作

문화소식

광주 북구청 공예학교 연다

광주 북구청에 전통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공예문화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건국동 우치현장민원실에 들어설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탱화실, 도자기실, 가마실 등이 들어선다. 모집분야는 탱화, 도자기, 소목, 채상 등 4개 부문이고 내년 2월 5일까지 북구청 문화정보실에서 접수한다. 강의는 해당 분야의 지방무형문화재 기능 전수자들이 직접 맡고 초급반과 연구과정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062)510-1221

충북불교회관 개관 1돌 공연

충북불교문화회관은 6일 불교문화회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 '명인 초대 공연'을 가졌다.

달마도의 대가 범주 스님, 피아노계의 기인 임동창, 가층의 명인 강만홍 교수, 대금의 명인 자연 스님, 한국 무용 이영희, 바리톤 박경민 교수 등 우리 시대의 기인과 명인, 예술인이 한 자리에 섰다. 범주 스님의 달마선서화전은 3층 갤러리에서 16일까지 계속된다.

통일서예대전 20일까지 전시

한국종교인서예인협회(회장 홍근수)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최창규)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한글과 문인화 부문은 15일까지, 한문과 전각부문은 15일부터 20일까지 전시된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한북강남(漢北江南)'을 출품한 이순단씨가 통일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02)730-4846

백상 출판문화상 불서 3권만 응모

11월 30일 끝난 제41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접수마감 결과 불교관련 서적은 《한용운 평전》(고은, 고려원·문학부문) 《순교자 보우선사》(박영기, 한길사·철학종교부문) 《칸트와 불교》(김진, 철학과현실사·*) 등 3권만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법정 옮김, 나무심는사람) 등 7권을 응모한 작년에 비해 4권이 준 것이다. 한편 저작상과 출판상으로 나눠 심사하는 올해는 모두 156개 출판사에서 777종 1,758권의 도서를 출품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9114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 (빨강) (연두) (노랑)
공단등: (빨강) (노랑) (오색)
팔모조립등: 팔모조립등,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